

기업경영전략, 상표 빅데이터에서 해답 찾는다!

- 특허청, 최근 10년간 누적된 약 230만 건의 상표출원 데이터 분석결과 공개 -
- 최근 10년간 대기업 전문서비스업 상표출원↑, 중소기업 도소매업 상표출원↑ -
- 상표 빅데이터는 경기 변동지표로도 활용가능, 향후 산업지표 기관과 업무협력 추진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최근 10년간('15~'24년)의 상표 빅데이터를 기초로 산업별 상표출원 흐름, 주요·핵심 산업의 변화, 상표·경기변동의 관계, 출원인별 산업 특징 등을 분석하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제조업, 정보통신, 도소매업 등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비중 증가>

특허청은 최근 10년간 누적된 약 230만 건의 상표출원 데이터를 근거로 산업분야별 출원 및 비중변화 동향 등을 분석했다.

(산업분야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제조업 상표출원이 약 125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신서비스/콘텐츠/게임 등 정보통신 관련 산업이 약 46만건,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이 약 40만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식료품 등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분야의 상표출원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붙임 1-1, 1-2]

(산업분야별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도·소매업은 13.7%에서 20.6%로 증가, 정보통신업은 17.4%에서 19.9%로 증가했다. 반면 화장품 등 제조업 상표출원은 55.1%에서 52.2%로 감소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상표출원도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붙임 1-3]

<대기업은 전문서비스 및 정보통신↑, 중소기업은 도소매업 분야가 ↑>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연구개발·정보분석과 같은 지식재산 기반의 고부가가치 전문서비스 및 정보통신 분야의 출원이 최근 10년간 각각 연평균 3.2%, 2.8% 증가했다. [붙임 2]

반면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은 비대면 소비 확산 및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따라 도소매업 분야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8.4%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붙임 2]

<상표 빅데이터, 산업·경기를 모니터링 및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바탕으로 산업별 상표출원-경기변동 간 선후관계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도소매업, 전문서비스업 등의 상표출원은 경기 동행 또는 후행지표로서의 특징을 보였다.

반면, ▲‘건설업, 운수창고업’에서는 선행지표로서 미래의 경기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경기를 모니터링 및 예측하는 객관적인 통계 지표로서 상표출원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2023년부터 상표정보에 산업적 관점의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여 시장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기업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표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상표정보가 경기지표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 산업지표 기관과 업무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월 각 산업별 협회·단체를 현장 방문하여 산업별 상표제도와 상표 비즈니스 전략을 설명하고, 목소리도 청취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 10년간의 상표출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업이 상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는 해외 시장 환경 및 글로벌 경쟁기업의 상표 분석까지 확장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산업별 상표출원 동향분석 결과 (’ 25.4월)

담당 부서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영택	(042-481-5265)
		담당자	사무관	시명근	(042-481-8343)

① 최근 10년간 상표출원 건수('15~'24년)

(단위 : 년, 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상표출원	185,443	181,606	182,918	200,341	221,507	257,933	285,821	259,078	255,209	256,045	2,285,901

② 산업분야별 출원동향*

(단위 : 년, 건)

KSIC 대분류 산업명	상표출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제조업	102,230	103,281	104,086	110,006	123,569	143,643	155,291	138,134	135,872	133,607	1,249,719
정보통신업	32,326	32,135	32,463	39,006	43,550	52,543	63,163	62,891	56,049	50,827	464,953
도매 및 소매업	25,392	25,239	25,560	30,628	35,538	45,762	55,801	51,163	52,265	52,849	400,19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701	20,281	21,742	27,614	31,263	36,534	45,391	43,669	40,759	36,647	325,60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자원 및 임대 서비스업	20,733	20,624	21,485	24,170	26,275	29,766	36,071	35,067	31,494	27,390	273,075

* 산업분야별 출원건수 1위부터 5위까지만 표시

③ 산업분야별 비중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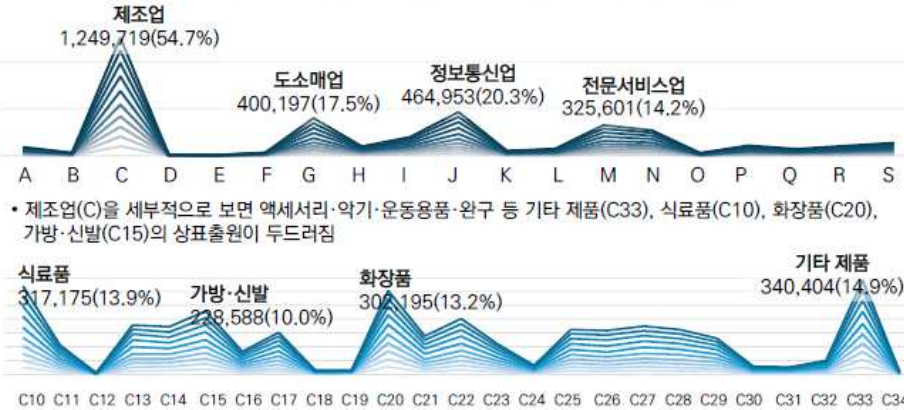
KSIC 대분류 산업명	2015	2024	비중 변화
도·소매업	13.7% (25,392건)	20.6% (52,849건)	▲ 6.90%
정보통신업	17.4% (32,326건)	19.9% (50,827건)	▲ 2.50%
제조업	55.1% (102,230건)	52.2% (133,607건)	▽ 2.90%

○ 출원인 유형별 다출원 산업 (2015년, 2020년, 2024년)

출원인	2015			2020			2024		
대기업	1	화장품(C20)	4,322	1	정보통신업(J)	4,953	1	정보통신업(J)	4,011
	2	기타 제품(C33)	3,510	2	화장품(C20)	4,013	2	전문서비스업(M)	2,923
	3	정보통신업(J)	3,128	3	기타 제품(C33)	3,955	3	기타 제품(C33)	2,819
	4	고무.플라스틱제품(C22)	2,704	4	사업지원(N)	3,685	4	사업지원(N)	2,789
	5	사업지원(N)	2,646	5	전문서비스업(M)	3,438	5	화장품(C20)	2,259
	6	전문서비스업(M)	2,211						
중견기업	1	식료품(C10)	2,593	1	식료품(C10)	3,406	1	정보통신업(J)	2,974
	2	화장품(C20)	2,079	2	정보통신업(J)	2,679	2	식료품(C10)	2,716
	3	정보통신업(J)	2,001	3	화장품(C20)	2,626	3	기타 제품(C33)	2,155
	4	기타 제품(C33)	1,583	4	기타 제품(C33)	2,347	4	화장품(C20)	1,822
	5	사업지원(N)	1,281	5	사업지원(N)	1,647	5	사업지원(N)	1,801
중소기업	1	정보통신업(J)	9,530	1	정보통신업(J)	17,823	1	정보통신업(J)	17,591
	2	화장품(C20)	8,566	2	도소매업(G)	13,522	2	도소매업(G)	14,012
	3	도소매업(G)	6,788	3	화장품(C20)	13,030	3	식료품(C10)	12,331
	4	기타 제품(C33)	6,747	4	식료품(C10)	12,494	4	전문서비스업(M)	11,455
	5	식료품(C10)	6,592	5	전문서비스업(M)	11,302	5	화장품(C20)	10,488
외국인	1	화장품(C20)	3,161	1	기타 제품(C33)	3,008	1	기타 제품(C33)	2,595
	2	기타 제품(C33)	2,974	2	화장품(C20)	2,952	2	가방.신발(C15)	2,058
	3	가방.신발(C15)	2,370	3	정보통신업(J)	2,368	3	화장품(C20)	1,911
	4	정보통신업(J)	2,213	4	가방.신발(C15)	2,361	4	정보통신업(J)	1,857
	5	식료품(C10)	2,011	5	고무.플라스틱제품(C22)	2,283	5	도소매업(G)	1,496
개인	1	도소매업(G)	14,285	1	도소매업(G)	26,058	1	도소매업(G)	32,728
	2	정보통신업(J)	13,915	2	정보통신업(J)	21,731	2	정보통신업(J)	21,343
	3	숙박업(I)	12,919	3	전문서비스업(M)	16,089	3	전문서비스업(M)	17,024
	4	기타 제품(C33)	9,777	4	기타 제품(C33)	14,910	4	음식 및 숙박업(I)	15,932
	5	전문서비스업(M)	9,618	5	음식 및 숙박업(I)	14,887	5	식료품(C10)	15,102

1. 산업별 상표출원 분포 ('15~'24, 10년 누적)

• 제조업(C)이 가장 많고(125만건, 54.7%), 정보통신업(J), 도소매업(G), 전문서비스업(M)이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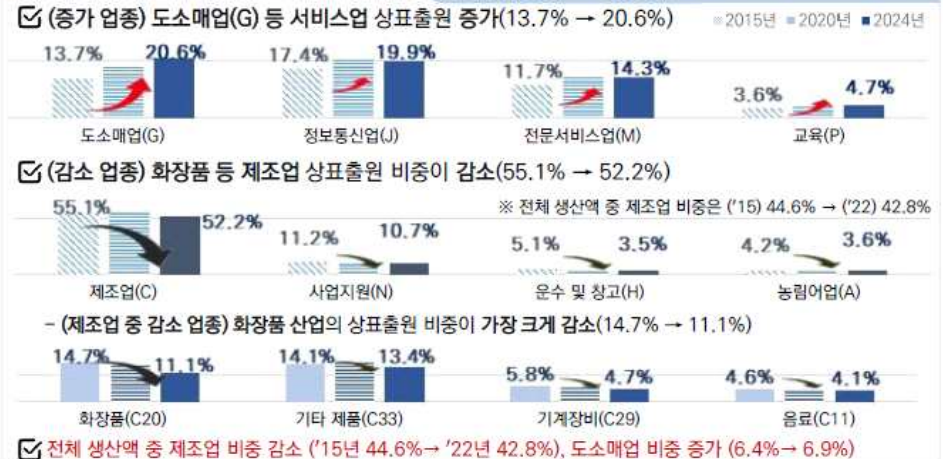
3. 산업별 상표와 경기간 선후관계 ('03.1.~'24.12)

분석 방법	산업별 월별 상표출원건수와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간 선후관계 분석('03.1월~'24.12월)	
분석 결과	상표가 산업별 경기의 동행, 선행, 후행지표로 작용	
구분	의미	해당 업종
동행	상표가 경기와 함께 변동 (현재의 경기 판단)	제조업(C) 도소매업(G), 정보통신업(J)
선행	상표가 경기보다 먼저 변동 (미래의 경기 예측)	건설업(F) 운수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후행	상표가 경기보다 나중에 변동 (과거의 경기 확인)	전문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P) 예술스포츠업(R)

☑ 상표출원 데이터가 산업별 경기 회복 및 위축 신호로 기능할 수 있음이 확인

※ 기업경기실사지수는 한국은행이 매월 기업의 경영현황과 전망을 설문조사하여 0~200사이의 수치로 발표하는 경제심리지표

2. 산업별 상표출원 비중 변화('15→'20→'24)



4. 출원인 유형별 다출원 산업 변화('15→'20→'24): 정보통신업은 순위 상승, 화장품은 순위 하강



5. 산업 분야 심층분석: 생활가전(C28) 관련 상표 출원 변화 ('15→'24)



※ (2024년 신규 출원 지정상품) 에어프라이어, 안마의자, 로봇식 창문청소기 등

※ 지정상품 명칭에 반영되지 못한 AI 등 신규 기술 트렌드는 표장에 반영